

#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 III. 증가한 선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1.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내국인 사역자들

여기에 소개되는 내국인 사역자들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에서 언급한 인물들에 국한되었다. 서울성서신학교 초기 졸업생들 가운데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았지만, 자료의 부재로 인해서 부득이 이 글에서는 테일러 선교사가 남긴 자료와 필자가 확보하여 작성한 자료들에 국한하였다.

1924년 이후 ‘기독교회’란 교단명칭으로 시작된 선교는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까지 도쿄 ‘요츠야선교부’와 ‘기독교회선교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해방 후 ‘기독교회선교부’는 6·25전쟁과 같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이어갔고 그 명맥이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로부터 시작되어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김요한(金與範, 제3대 포교관리자), 존 J. 힐(John J. Hill),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고든 패튼(Gorden Harry Patten)에 이르기까지, 1935년부터 1991년까지 56년간 이어졌지만, 요츠야선교부는 1941년에 한국선교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그 바람에 해방 직후 ‘인천송현기독교회’는 ‘송현성결교회’로, 송현기독교회에서 분리된 인천의 또 다른 교회는 ‘인천제일장로교회’(통합)로 재건되었다. 심지어 요츠야선교부는 해방 후 유일하게 재건된 재일본 조선인기독교회인 도쿄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회’에서조차 1960년에 손을 떼는 바람에 ‘미카와시마조선기독교회’는 1974년 11월 창립 50주년에 맞춰 ‘동경복음교회’(초교파)가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는 미국에서 공부한 내국인 사역자들이 만든 선교회들이 증가하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동력이 커지게 되었다.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도 서울성서신학교 한곳뿐이던 것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대전)까지 추가로 설립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선교회들이 증가하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선교정책이 중앙집권식이 아니라 직접후원선교방식이기 때문이었다. 직접후원선교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총회나 협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파송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개 교회들과 개인들로부터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선교사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신학교들에서 공부한 많은 나라의 내국인들(indigenous nationals)에게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둘째는 선교사들은 해외에 나가서 언어, 문화, 음식과 기후차이, 낙후된 환경 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반면에 내국인들에게는 그 같은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셋째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미국의 신학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능한 학생들을 받아서 공부시켜 돌려보내는 데 헌신적이었다. 이것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여러 신학교들에 유학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선교회를 만들어 후원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내외국인 개인들이 만든 선교회 이름들은 대부분 교단의 공식기구들이 아니며, 한국에서 쓰였거나 쓰이는 이름들이 아니다. 반면에 존 T. 채이스의 ‘기독교회선교부’, 해롤드 테일러의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 및 존 J. 힐의 ‘한국크리스찬밋숀’(한국그리스도의교회유지재단)은 교단의 공식기구들이다.

### 1) 최순국 목사(1933.02.08-2002.09.16)



최순국 목사 가족(1960년 중반)  
사모 손명희, 미동, 데이비드(선동)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에 소재한 브라이트신학대학원(Brite Divinity School)의 이상훈 박사의 ‘우리의 대선배 최순국 목사’, ‘최순국’,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의 약사’에 의하면, 최순국 목사는 1933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유교신자였고, 모친은 불교신자였다. 그러나 그는 중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담임 교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톱이 모두 뽑히는 고문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실에 최순국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기독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부모의 종교들은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그에게 그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였지만, 기독교는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최순국은 독립심과 의지가 강하고, 종종 별난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인정이 많았다. 이런 성품 때문에 6·25전쟁 중에는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재일본 한인 34명으로 구성된 학도의용군에 자원입대하여 전투에 참여하였고, 생존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Timothy Lee, “Soongook Choi: Our taesonbae,” Fall/Winter 2002-03 Bulletin(Vol. 72, No 2) of the Disciples Divinity Hous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http://kccs.info/Choi DDH bio.pdf>: 3; Timothy S. Lee, “J. Soongook Choi,” <http://kccs.info/BIO-Soongook Choi.pdf>; Timothy S. Lee, ‘최순국 장학금,’ <http://kccs.info/2011 Kagiwada Memorial Sunday.pdf>: 10>.

이 일이 있고나서 최순국은 존 J. 힐(John J. Hill) 선교사가 운영한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의 결혼식 주례도 김은석 목사가 맡았다. 이 때문에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최순국’이란 이름이 몇 차례 나온다. 그는 1953년 8월 4일 존 힐 선교사의 통역으로 창현 함태영 목사가 세운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방문하였고[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시시울, 2020: 250), 테일러 선교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 의하면, 최순국은 군입대를 꼭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테일러와 함께 1957년 3월 19일 밤기차로 부산에 내려가 이튿날 방송국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알렉스 빌즈(Alex Bills) 가족을 만나 환담을 나눴고, 울산을 거쳐 영양, 삼척, 강릉, 주문진, 38선 이북 고성까지 돌아 26일 화요일 밤에 서울로 돌아온 교회순방 일정을 소화하였다<“To the Uttermost Parts,” For Christ in Korea(FCK), 1957년 6월호>. 1958년 3월 30일 주일에는 리처드 래쉬(Richard Lash) 선교사의 통역으로 김은석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부강교회를 방문하였다[<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228]. 버트 엘리스와 조 세걸키의 1959년 7월 부산방송선교서신에 의하면, 최순국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의 통역관이기도 했다<Bert Ellis and Joe Seggelke, Kilocycles: Korean Broadcasting Mission, July 1959: 2>.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최순국은 6·25전쟁 직후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니며 그리스도(인)의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중반 최순국 목사

테일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2월호 내용에 비춰볼 때, 존 힐의 사모 에스더 비반즈(Esther Evelyn Beavans Hill)의 비행 사건으로 선교사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 1954년 6월 25일 신학교가 휴교하는 사태에 이른다[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약기파 합동건,”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김종기, 조동호 편집(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어느 시점에 최순국은 부모님이 계신 일본으로 건너가 요츠야선교부의 동경성서신학교(1948년 4월 10일 개교, “Bible College Opens in April,” *Tokyo Christian*, March-April 1948: 1)를 다니던 중에 테일러 선교사 가족이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를 맡아 1955년 11월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테일러를 찾아가 선교부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며, 본인도 1955년 12월 31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테일러에게 신실한 협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에 맞춰 최순국이 찾아왔고, 테일러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선교사를 도운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Chueh Soog Gook,” FCK, 1957년 2월호>.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서 최순국이 4월 20일에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군에 입대하였다고 전하면서 자신들이 1955년 11월에 입국해서 직면했던 난관들을 놀랍도록 지혜롭게 처리해준 23살의 젊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채이스 선교사가 20대 후반의 박판조에게 보인 애정이 훌륭한 미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지도자감이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테일러 선교사가 20대 초반의 최순국에게 보인 애정은 그가 입증한 지혜와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순국은 이미 서울 성서신학교의 학생신분으로서 존 힐 선교사의 통역을 맡아 일을 했던 경력자였고, 기독교회선교부가 분열에 휩싸였을 때 그 싸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으며, 젊지만 지혜가 많고 테일러에게 헌신적이어서 분열에 휩싸였던 기독교회선교부에 평온을 되찾게 하고, 내국인 목회자들이 자신의 리더십 아래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운 공신이었던 때문이었다. 테일러는 최순국이 1955년 12월 31일에 일본에서 돌아와 자신을 찾아온 일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신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To the Army,” FCK, 1957년 6월호>. 테일러 선교사는 1958년 2월호에서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최순국은 미국에 유학하게 될 것이고, 아무 때라도 제대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실제로 최순국이 이 무렵에 제대한 것으로 추정된다<“Futures’ for the Work,” FCK, 1958년 2월호>.



1960년대 초 최순국 목사 가족과 데일 브라운(Dale Brown) 목사 가족

6·25동란 때 학도의용군이었던 최순국은 미군부대에 편입되어 미 공군 사병이었던 데일 브라운(Dale Brown)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최순국이 1959년에 미국에 유학할 수 있었던 데는 데일의 도움이 컸다. 이후 테일러는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Disciples of Christ)에서 목회하였다 <참고: “Chueh Soog Gook,” FCK, 1957년 2월호에 테일러는 Dale Brown를 Irwin Brown으로 잘못 표

기하였다>. 첨부한 칼라 사진 두 장(이상훈 박사 제공)은 데일 브라운 목사가 촬영한 것들로써 가족사진은 1960년대 초에, 독사진은 1950년대 중반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사진은 최순국 목사 가족과 데일 브라운 목사 가족이 함께 찍은 것이다.

최순국은 1959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하여<“The Seminary,” FCK, 1959년 5월호: 2> 1961년에 링컨기독교대학(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에서 문학사(A.B), 1962년에 신약신학을 전공하여 문학석사학위(MA)를 받고, 동년에 목사안수도 받았다. 이어 1965년에 밴더빌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B.D. 오늘날의 M.Div)를 받고 <“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J. Soongook Choi,” *Ibid.*; ‘최순국 장학금,’ *Ibid.*>, 1966년 8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나서 동년 9월 1일경에 부산에 도착하였다<“Letter 1: Dear Friends in Christ,” Dong’ Yuk, March 29, 1966>. 귀국하여 1969년까지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무하면서<Korea Evangelistic Mission(KEM) News: “A Letter to Adelphos Christou,” January 1971: 2> 대한기독교

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설립협의회 회장과 교수 및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최순국은 1964년 8월 26일 조직된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 설립협의회(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의 회장직을 맡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최윤권 목사의 리더십으로 최순국, 안재관과 같은 링컨기독교대학 출신 또는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1965년 3월에 설립되었다. 상임위원에는 안재관, 최윤권(실무 학장), 장성만, 조충연, 최순국, 최요한, 이종만, 임명진, 강병천, 김현숙, 김진문(설립협의회 서기 겸 교무처장), 김규상, 김태수, 구광서(설립협의회 총무), 오현팔, 심영진, 성수경, 양해문이었고, 미국인 고문에 단 드웰트(Don DeWelt), W. L. 제섭(Jessup), 빌 전킨즈(Bill Junkins), 존 피얼스(John R. Pierce), 아이러 리드(Ira B. Read)였다. 대학설립과 동시에 <환원>지도 발간되었다<Soongook Choi, “Reports - Plans Interpretation” of the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20 November 1965; Leaflets of the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November 1965>.



최순국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복음전도협의회(Korea Evangelistic Association)를 만들었고, 1960년대 동안 격월 선교지 ‘동역’(Dong’ Yuk)을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1971년 1월부터는 ‘한국복음전도협의회’를 ‘한국복음선교회’(Korea Evangelistic Mission, KEM)로 이름을 바꾸고, 월간 선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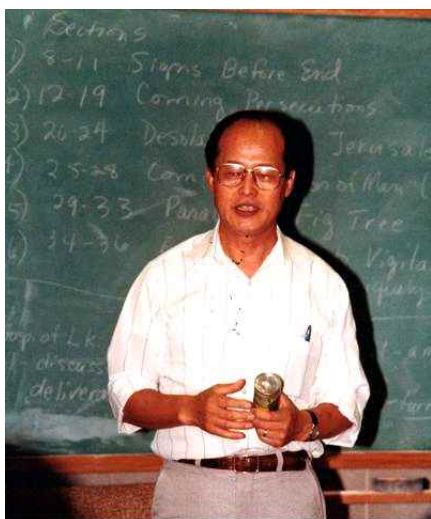
‘한국복음선교회 소식지’(KEM NEWS)를 발송하였다. 최순국은 이 선교회를 기반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교수와 목회자와 방송선교사로 왕성하게 사역하였다. 1968년부터 라디오 기독교 방송국의 시간을 사서 최윤권, 김일엽(KEM 라디오방송 담당자)과 함께 방송설교와 ‘이형과 더불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설교는 서울, 대구, 부산, 이리, 광주에서 주일 오후 5시에, 서울을 제외한 대구, 부산, 이리, 광주에서는 주일 오전 8:30에도 방송이 나갔다. ‘이형과 더불어’는 CBS에서 매주 2회 10분간 방송되었다. 1970년에 송출된 방송결과를 보면, 청취자들로부터 2,729통(평균 매주 52통)의 편지를 받았고, 182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26번 개최된 모임에 297명이 참석하였다. 그 결과 243명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고, 172명이 침례를 받았다<Korea Evangelistic Mission(KEM) News: “A Letter to Adelpnos Christou,” January 1971: 2>.

최순국은 1974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하여 10월 20일에 시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23년간 은퇴할 때까지 섬겼다<“Chicago Christian Church (Korean),” KEM NEWS, vol. 10, no, 3, September 1974: 1-2>. 이 교회도 다른 한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처럼 중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단에 가입하였다. 유근희 박사(태평양아시아인

사역 실행목사), 노동국 목사(제자들신학원 동문, 일리노이 주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에버그린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목회자), 이상훈 박사(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 소재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 등이 최순국 목사의 영향을 받은 미국 한인 그리스도(인)의교회 지도자들이다<“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최순국은 1989년 노트르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시카고 파크릿지(Park Ridge)에 소재한 루터교종합병원(Lutheran General Hospital)의 정규직 원목으로도 사역하였다<“J. Soongook Choi,” *Ibid.*; “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최순국은 일본에서 당한 인종차별, 한반도에서 겪은 동족상잔의 뼈저린 경험을 거울 삼아 일찍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인종화합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민족들 간의 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타민족 공동체들 사이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최순국은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며, 평화롭게 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화해를 도출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신념으로 최순국은 ‘한인제자들교회협회’(Korean Disciples Convocation)를 설립하였고, ‘제자들교회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의 동문들인 데이비드 가가와다(David Kagiwada), 조 앤 가가와다(Jo Anne Kagiwada) 등과 협력하여 현재 80여개 교회들이 가입해 있는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NAPAD)을 조직하였다<“J. Soongook Choi,” *Ibid.*; “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Timothy Lee, “In View of Existing Conditions: A Brief History of the 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1891-2010,” *Discipliana*, Spring 2012: 6, <http://kccs.info/The History of NAPAD TSL.pdf>>.



최순국 목사

최순국은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 교단의 총괄 이사회의 회원을 역임하였고, ‘제자들교회신학원’의 이사를 1989-97년에 역임하였다. 그는 또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시 파티마 연수원(Fatima Retreat)에서 1984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된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Disciples of Christ) 산하 아시아계 미국인 제자들(American-Asian Disciples, AAD)의 제3차 회의 때 회장(소집자)으로 선출되어 아시아계 미국인 교회들을 이끌었다. 또 최순국은 1993년에 결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국인 목회자회’(Disciples of Christ Korean Fellowship)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봉사하였다.

2000년에는 이 친목회가 ‘한국인제자들교회협회’로 발전되었다.

최순국은 1990년에 찾아온 뇌졸중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던 사역을 내려놓고 1997년 3월에 은퇴하였다. 은퇴식은 그가 23년간 섬겼고, 한인 교회들에 지도력을 제

공했던 시카고 한인 그리스도(인)의 교회(Chicago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NAPAD)로부터 감사패를 증정 받았으며, 그의 삶과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사역국’(Division of Homeland Ministries, DHM)에 ‘최순국장학기금’이 설립되었다.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NAPAD) 사역에 소속된 학생들이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정식학생으로 등록한 경우에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순국은 또 2000년 그리스도(인)의교회 교단에서 평가한 지난 1백년간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36명의 사역자 중에서 아시안 남성으로는 유일하게 선발되었고, 지난 20세기 그리스도의 제자들 100대 목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시카고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창립자이자 대학기독교신학교의 공동설립자인 최순국 목사는 2002년 4월 14일 알링톤 하이츠 소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서울기독교대학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기독교대학교 이강평 총장이 직접 시카고를 방문하여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2016): 250-58].

이상훈 박사는 ‘가기와다 주일, 의장의 메시지’ (“Kagiwada Sunday, Moderator’s Message”)이란 글에서 “슬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교단의 존경을 받는 한 목사는 60대에 뇌졸중을 일으켜 반쯤 마비되었습니다. 입원한 그는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고통스러운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병원의 같은 층에 또 다른 남자가 도착했는데, 역시 반쯤 마비되었지만 훨씬 더 젊은, 아마도 40대였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희망을 포기하고 물리치료를 거부하면서 의기소침해하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에 대해 알게 된 목사님은 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를 만난 목사님은 자신과 같은 나이 든 남자도 포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 남자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굴의 정신을 발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순국 목사였습니다” <Timothy Lee, “Kagiwada Sunday, Moderator’s Message,” Tell It, August 2011; [http://kccs.info/2011\\_Kagiwada\\_Memorial\\_Sunday.pdf](http://kccs.info/2011_Kagiwada_Memorial_Sunday.pdf): 1>.

최순국 목사는 2002년 9월 16일 별세 하였다. 사모 손명희로부터 미동과 데이비드(선동) 두 아들을 두었다<“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 2) 김동수 목사

테일러 선교사는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FCK) 1957년 6월호에서 김동수 목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김동수 형제는 나이가 67세이다. 육신은 날로 쇠하여가지만, 그의 신념만큼은 더욱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있다. 그는 이미 9년간 선교부의 통역과 교수로 섬겼으며, 부인이 병약하여 간호에도 힘쓰고 있다. 또 김동수는 행방불명된 네 아들들의 아이들(손주들)을 돌보고 있다(Harold Taylor, “Bro. Kim Dong Soo--,” FCK, 1957년 6월호).



김동수 목사(1950년대 중반, 힐과 테일러의 동역)

김동수 목사를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년도는 대략 1952년에서부터 60년경까지이다. 테일러 선교사가 언급한 9년은 햇수로 9년이고, 실제로는 만 8년을 의미한다. 그렇더라도 이 수치는 김동수 목사가 힐 요한 선교사가 해방 후 재입국한 1949년 초창기부터 힐과 함께 사역했다는 의미가 된다. 존 J. 힐 가족은 1949년 2월 18일에 재입국하였다. 힐 선교사를 도왔던 김동수 목사는 최순국이 군에 입대하면서 다시 테일러 선교사를 돕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목사는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테일러 선교사가 영문으로 소개한 김동수 목사의 간증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밖에는 달리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때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우셨고 능히 나를 죄의 나락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동수 목사(동역)와 이기우 목사  
신갈 그리스도의교회(천막 집회소 입구, 1952년 10월 3일 개척)

나는 영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지 일 년 되던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지만, 술을 끊지 못했고, 중독이 되도록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세군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날 때까지는 술을 끊어보려는 나의 노력이 번번이 허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술을 거부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세주로 발견하였고, 그분이 내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구세군에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만족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세군 사역에 오랜 기간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9년 전에 그리스

도의 교회에서 존 J. 힐 선교사를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제대로 침례를 베풀어주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마음에 만족을 얻었고, 그로부터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자 김동수 장로/목사  
1979년 10월 1일 장성우 장로의 목사 안수식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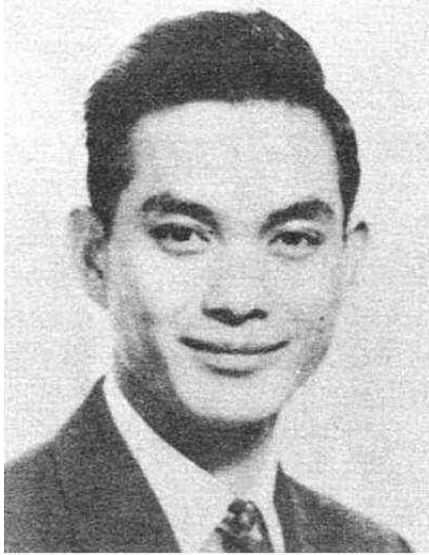
6·25동란이 터지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가야했습니다. 모일 모시에 서울이 폭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난길에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가지 않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공산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군들이 우리가 살았던 곳 근처에까지 와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후 3-4시까지 총질을 해댔습니다. 나중에 내가 나가봤을 때 나는 우리가 살았던 곳이 포탄을 맞아 박살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계 무슨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살던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가 1951년 1월 4일 공산군들이 두 번째 남침한 때였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많은 체험들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전쟁 중에 행방불명이 된 네 명의 아들의 일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정말 비극이었다고만 말하겠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침언하기를, “그렇습니다. 김 형제는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고 하였다.

### 3) 최윤권 목사

최윤권牧사는 교회설립자, 대학설립자, 보육원 설립자이다. 또 강단 및 방송설교가, 교육가, 저술가이며 환원운동가이다.

최윤권은 1932년 2월 13일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전 ‘기독교회’) 제1세대 목사이자 1919년 3·1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영역한 건(件)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독립 운동가로서 조선소요사건에 연루 됐던 야소교청년연합회 동대문지역 대표였으며, 문필가였던 최상현 목사의 둘째 아들로 서울 평동에서 출생하였다. 최윤권은 자신의 나이 만 18세 때인 1950년에 부친이 납북되는 환난 속에서 6·25전쟁 막바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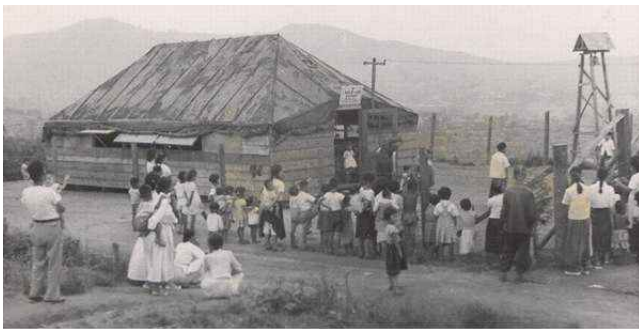


1956년 12월 31일 부산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961년 11월에 귀국한 최윤권 목사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3년간 복무 후 육군 중위(연락장교)로 예편하였다(Harold Taylor, "The Son of an Outstanding Family," For Christ in Korea, FCK, 1957년 2월호: 5).

최윤권은 1956년 가을학기에 맞춰 도미하려했으나 유학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3개월간 서울성서신학교에서 영어강사, 통역, <한길>지 편집 등의 일을 도움으로써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부족한 비용을 보조받아 12월 31일 부산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다<Ibid>. 최윤권은 미국에서 1960년 '산호세성서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과 1961년 '링컨기독교신학교'(현 Lincoln Christian Seminary of the Lincoln Christian University)를 졸업하고, '한국기독교복음선교회'(Korea Christian Gospel Mission, KCGM, <http://www.kcgm.org/>)를 만들어 1961년 11월 8일 귀국하였다(Harold Taylor, FCK, 1961년 10월호: 6).

귀국 후 최윤권 목사는 도원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이듬해인 1962년 2월 5일 테일러 선교사의 자택 홀에서 선교사의 주례와 이신 목사의 사회로 민지은 씨와 결혼하였다. 테일러는 그들이 결혼식 직후 바로 일터로 돌아갔다고 했다. 민지은 사모는 그녀의 직장인 학교로 갔고, 최윤권은 연속되는 도원교회 집회준비로 갔다고 했다(Harold Taylor, "Wedding Bells," FCK, 1962년 3월호). 최윤권은 1963년에 통신신학을 개설하였다. 통신신학은 한때 학생이 2,000여명에 이르렀고, 점자과에도 맹인 설교자가 100



1950년대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  
도원동은 마포구 도화동 쪽으로 경사진 산비탈에 이루어진 동네였다.

여명이나 있었다. 1964년 중앙그리스도의교회를 비롯하여 13개 이상의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성경연구원을 시작하였고, <환원>지를 창간하였다. 환원출판사를 통해서 14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시기에 최윤권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선교기금사용방식 또는 선교지원방식을 놓고 내국인 목회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자, 테일러와 갈라져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한기독교신학교'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서 '기성회'란 1964년 8월 26일 조직된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 설립협의회(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를 말한다.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최윤권 목사의 리더십으로 최순국, 안재관과 같은 링컨기독교대학 출신 또는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1965년 3월에 설립되었다. 상임위원에는 안재관, 최윤권(실무 학장), 장성만, 조충연, 최순국, 최요한, 이종만, 임명진, 강병천, 김현숙, 김진문(설립

협의회 서기 겸 교무처장), 김규상, 김태수, 구광서(설립협의회 총무), 오현팔, 심영진, 성수경, 양해문이었고, 미국인 고문에 단 드웰트(Don DeWelt), W. L. 제섭(Jessup), 빌 전킨즈(Bill Junkins), 존 피얼스(John R. Pierce), 아이러 리드(Ira B. Read)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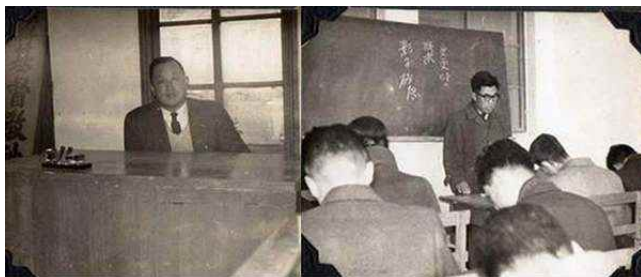


대한기독교신학교(원효로 임시교사, 1965년경)

〈Soongook Choi, “Reports - Plans Interpretation” of the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20 November 1965; Leaflets of the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November 1965〉. 그리고 1965년 3월 1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임시 교사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최윤권 목사가 교장을 맡았고, 공동설립자 최순국 목사는 기성회(설립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심영진, 이신, 김진문, 최윤희, 김규상 등이 강의를 맡아 가르쳤다. 동년 여름 효창동 소재 구 철도청 관사를 사들여 교사로 사용하였다. 대학설립에 대해서 최윤권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일 년 후 테일러 선교사와 갈라진 최윤권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대한기독교 대학 기성회를 조직했다. 기성회 회장은 최순국 목사가 맡았고, 1965년 3월 1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임시 교사를 마련하여 대한기독교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최윤권 목사가 교장을 맡았고, 구광서 목사, 강병천 목사, 성수경 목사, 심영진 목사, 이신 목사, 김진문 목사, 최윤희 목사, 김규상 목사 등이 교수하였다. 물론 이 학교가 개교되기까지 선교사들로부터, 혹은 반대하는 교역자들로부터 핍박과 방해공작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무수한 협박장과 신체적 위협까지 느꼈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여들었고 교수들은 보수 없이도 열심히 가르쳤다. 그리하여 공백 되었던 교회와 교회 없던 농어촌들을 메워줄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 되었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을 도와줄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었다. 1965년 여름에는 최윤권 목사 소유 가옥과 최윤희 목사 소유 가옥을 팔아 효창동에 전 철도청 관사를 사들여 교사를 만들었으며, 최윤권 목사도 아주 그곳에 이주해서 살았다(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한국문화인쇄, 2003: 61).



대한기독교신학교 교수, 구광서 목사(좌)와 강병천 목사(우)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구광서 목사와 강병천 목사는 이종만 목사,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 정희건 목사(전도자), 이흥식 전도자 등과 함께 6·25전쟁 직전 직후에 존 J. 힐이 운영한 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구광서 목사는 월남한 교역자 및 교육자로서 신학교 졸업 후 돈암동교회, 중앙교회, 도원동교회 등에서 시무하였

고, 1965년에는 최윤권 목사와 더불어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시작하여 오랫동안 부교장으로 수고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1994년에 별세하였다. 강병천 목사는 일제강점기 때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분으로서 해방 후 귀국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중앙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1993년에 미국에서 별세하였다<Ibid.: 40>.

대한기독교신학교는 개교 첫 해인 1965년 12월 10일에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김순옥(장성우 목사의 사모)을 비롯해서 7명이 졸업하였다. 이들은 모두 편입해온 학생들이었다. 1967년에 졸업한 5명과 1968년에 졸업한 10명도 편입생들이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4년 과정을 마친 졸업생 20명이 배출된 해는 1969년이었다. 이 시기에 최홍철, 편무해, 문언식, 김용우, 백무길, 신조광, 유근희, 전주섭, 정동기, 박희한, 심한우, 김명성, 김춘국, 우심언, 육윤식, 김일엽, 이복원, 한정웅 등이 졸업하였다.



상: 대한기독교신학교(1965년)

좌측: 교수(김진표, 성수경, 최윤권, 김규상) 및 학생들(원호로 임시교사)  
우측: 교수(이신, 성수경, 최윤권, 김규상/우측줄) 및 목회자들이 함께했다.

하: 제1회 졸업식(1965년 12월 10일)

교수(좌측부터 최윤환, 김규상, 심영진, 이신, 최윤권,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김진표) 및 졸업생들(중앙 홍일검은 장성우 목사의 사모 김순옥). 교장, 학장, 총장, 이사장 등을 고루 역임하였다.

대한기독교신학교는 1972년 2월 학교법인 환원학원과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1년 3월부터는 고든 패튼(Gorden Patten) 선교사가 테일러 선교사의 대를 이어 운영하던 서울성서신학교와 통합하여 서울성서신학교 캠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새 출발하였다. 이후 1985년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지정되었고, 1997년 12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인을 받은 후, 1999년 12월 서울기독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최윤권 목사는 이곳에서

최윤권은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설립한 이듬해인 1966년에 지온보육원을 설립하였다. 결혼 후 빈민동네였던 도원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다. 교인들 가운데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네 명의 자녀들을 집에 데려다가 돌본 것이 첫 출발이었다. 1981년에 별세한 민지은 여사의 이름을 딴 지온보육원은 대한기독교신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강서구 개화동 325-11번지로 옮겼다<Ibid.: 63>.

최윤권 목사는 방송선교와 출판에도 열정을 보였다. 1970년대에 기독교방송을 통해서 최순국 목사, 김일엽 목사와 함께 ‘이형과 더불어’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단독으로 기독교방송 혹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아위,’ ‘성서로 돌아가자,’ ‘기쁜 소식’ 등을 방송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심야에 대북방송까지 하였다. 1988년부터 90년대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 속의 성경’이라는 텔레비전 종교 프로그램도 방송하였다.



최윤권 목사 성역 5주년 및 산수원 감사예배(2011년 2월 22일)  
박국자 사모(지문보육원 원장)와 아들 최우익 박사(화학, KCGM 책임자)

최윤권 목사는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저서로는 <깨어진 십자가 I권>(금성사, 1965), II권(홍익제, 1972), III권(태광출판사, 1982), <이형과 더불어>(최윤권, 최순국, 김일엽)(환원출판사, 1971), <기독교 기본교리>(환원출판사, 1973), <1년 52주 설교집>(초석출판사, 1986), <최윤권 목사 칼럼>(노벨문화사, 1988), <구원이란 무엇인가>(사랑선교회, 1990),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인가?>(1991), <못

박하신 것 외에는>(환원출판사, 1993), <교회가 하나 되는 길>(홍익제, 1992), <신앙의 의미>(쿠파출판사, 1996), <눈물 속에 뜨는 무지개>(문연사, 1997), <내가 누구인가>(쿠파출판사, 2000), 수정증보판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서울문화인쇄, 2003), <인생의 열쇠>(쿠파출판사, 2006) 등이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영문 저서들이 있다: *Restoration Movement in Korea; My Dear American Friends; Yours Because of Calvary; With These Children, Forever; Love Is Eternal; Korean Christian Church History; First Christian Mission to China; Praise Through Pain*. 이들 영문 서적들은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읽혔다.

최윤권 목사는 신약성경교회운동을 펼친 환원운동가이다. 그는 이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면서 통신신학을 개설하였고, <환원>지를 발간하였다. 그는 <환원>지 '창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Ibid.: 57>.

주님의 십자가가 산산조각이 났다. 사람들의 생각과 고집과 분쟁으로 그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또 갈라졌다.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십자가를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깨트린 것이다.

환원! 환원이란 돌아가자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물들여지지 않은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교권투쟁에 멍들지 않은 초대교회로 찾아가자는 것이다. 가운데자락에 가려지지 않은 그리스도를 찾아가자는 것이다. 이 작은 잡지는 이 돌아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갈라진 한국교회의 살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최윤권 목사는 <깨어진 십자가> 제1권 부록에 '우리의 주장'(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란 글을 실었다 <Ibid.: 58-60>.

(1) 우리의 주장(믿는 것):

① 우리의 신조는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상도 아니며 그 이하도 아니다.

②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사도행전에 계시되었으며 그 계획은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다름

없음을 믿는다.

③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및 부활의 복음이 이를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

④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함을 얻는다.

⑤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에 따르는 침수세례는 죄인을 구하는 구원의 중요한 단계임을 믿는다.

⑥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약성경이 완전한 계시임을 믿는다.

⑦ 우리는 사죄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죄인의 마음에서 되는 것이 아님을 믿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감정은 믿을 수 없다.

⑧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한말, 안 한말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모두 의견에 속한 것이며 의견에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끊을 수 없다.

⑨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로 구성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를 인정하심을 믿는다.

⑩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의 교육, 예배, 의식, 봉사 등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신약성경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2) 우리의 주장(안 믿는 것)

① 우리는 구교의 가톨릭주의, 신교의 교파주의 및 모든 종파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열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② 우리는 모든 인위적인 신조 및 학설을 비판 없이 믿지 않는다.

③ 우리는 성경에 없는 약식세례 및 유아세례를 믿지 않는다.

④ 우리는 신약성서에 계시되지 않은 여하한 교회도 믿지 않는다.

⑤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어떠한 인간의 생각도 믿지 않는다.

⑥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여하한 도덕률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의 피 없이는 아무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⑦ 우리는 사람이 '믿음만,' '회개만,' '세례만' 혹은 '행위만'으로 구원받음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약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룬 자와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이 환원운동이 적절히 이해되고 또한 적절히 실행될 때에 교회의 단순성과 순수성을 환원시킬 수 있으며 신약성경에 계시된 대로 교회를 재건할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아직까지 신약교회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였으며 물론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목표와 길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위적 신조, 명칭, 교리 및 의식을 버리고 성서를 연구하며 바른길을 찾기를 호소한다.

최윤권 목사는 <깨어진 십자가> 제2권에 환원운동의 호소들(Pleas)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Ibid.: 71-73>.

(1) 우리가 믿는 것은

① 하나의 교회이다. 즉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당이 아무리 장엄하고 그 조직이 아무리 세도 우리에게서 무용지물이다.

② 하나의 책이다. 즉 성경이다. 이것외의 신조도 헌장도 규약서도 강령도 필요 없다. 물론 성경외의 여하한 책도 계시서도 경전도 수양서도 기도문도 우리의 신앙을 구속치 못한다.

③ 하나의 신앙고백이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간증이다. 이외의 여하한 신앙고백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④ 성경에 있는 이름이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신자, 크리스찬, 제자, 성도 혹은 형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결코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혹은 어떠한 교파교인으로 불리기를 거절한다.

⑤ 성경에 있는 의식이다. 즉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이 실천한 형

식과 목적 그대로 순종한다.

⑥ 성경에 있는 정신 및 생활이다.

⑦ 성경에 있는 목적 그대로이다. 즉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려함이다.

이상의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우리의 주장은

①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다.

② 그리스도밖에는 신조가 없다.

③ 성서만이 믿음과 행실의 유일한 율법이다.

④ 고로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로써 해결한다.

⑤ 개인적 의견에 관한 것은 자유이다.

⑥ 신약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의 단합이다.

⑦ 성서에 관한 것은 성서의 이름으로 부른다.

⑧ 일체의 인위적 명칭 및 신조를 배격한다.

⑨ 성서에 명령된 의식을 명령 그대로 실천한다.

⑩ 각개 교회는 독립적 존재이다.

한마디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신약성서에 계시된 그대로의 이름, 신조 및 조직만을 갖고 성서의 명령을 의식과 생활에 있어 순종함으로써 하나 되기를 우리는 호소하는 것이다.

최윤권 목사는 이 환원정신을 공유하고 운동하는 교회들이 1970년도 <기독교연감>에 92개의 그리스도(인)교회들과 39개의 그리스도의교회들이 실렸고, 1976년도 <기독교연감>에 각각 106개와 51개가 실렸다고 하였다(Ibid: 69-70).

최윤권 목사는 1997년에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또 2007년에는 링컨기독교대학교(Lincoln Christian University)에서 공로가 큰 동문에게 수여하는 ‘환원상’(Restoration Award)을 ‘Kingdom Leadership’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https://lincoln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1/01/Past-Restoration-Award-Recipients-2021.01.pdf>>.

#### 4) 안재관 목사



안재관 목사

젊은 최순국이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초기 몇 년간 겪었던 난관들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함으로써 선교사로부터 “이 형제는 1956년 우리들의 오른팔이었다.” <“‘Futures’ for the Work,” FCK, 1958년 2월호: 2>는 칭송을 들었다면, 역시 젊은 안재관은 최순국이 1959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1960년부터 테일러의 “넘버원 조력자”(Our No. 1 Helper)이자 “신실한 조력자”(faithful helpers)라는 칭송을 들었다. 테일러는 이들 최순국과 안재관에 대한 감사가 깊다(Our appreciation for them is deep.)는 표현도 하였다 <“Red Tape,” FCK, 1960년 2월호: 2>.

안재관이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를 도왔던 시기는 테일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을 뿐 아니라, 매우 골치 아픈 시기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았고, 새로 구입한 7,087평의 역촌동(현재 신사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세워야했기 때문이다<“The New Location,” FCK, 1960년 5월호>. 이 시기에 서울성서신학교는 강의가 중단된 휴교상태였다. 테일러는 “Red Tape”란 말을 종종 언급하였다. 이 말은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뜻하는 영어표현으로써 17세기 영국 관청에서 공문서를 빨간 테이프로 묶어 보관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들 문서를 보려면 매번 이 테이프들을 풀고 다시 묶고 하는 일을 반복했어야 해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테일러는 한국 관청에서의 일처리가 매우 더디고 각종 규제가 많았던 것에 대한 불평을 ‘레드 테이프’란 말로 쏟아낸 것이다. 이 골치 아픈 일들의 해결사가 바로 안재관이었던 것이다. 안재관은 서울성서신학교 근무시절 송월동 부지와 재산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 매도가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신학교가 문교부(교육부)로부터 인가를 얻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법전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한 테일러 선교사의 수족이었다. 그래서 테일러는 역촌동 새 부지 위에 신학교를 건축함에 있어서 안재관은 다른 조력자들보다 “두 배로 중요하다”(bears double significance)고 했다<“We Are Not Alone,” FCK, 1960년 5월호: 2>.

안재관 목사는 1970년에 미국 ‘링컨기독교신학교’(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를 마치고 귀국하여 서울성서신학교가 아닌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대한기독교신학교의 설립협의회 상임위원과 제2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안재관 목사는 197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는 김성철 목사와 함께 글렌데일 기독교회(1975, Glendale, CA)와 가데나 기독교회(1976, Gardena, CA)를 개척 목회하였다[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시시울, 2020): 108]. 이 때 안재관 목사는 ‘제자들 교회’ 곧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에 가입하였고, 한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제자들 교회’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남가주 기독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안재관 목사는 2020년 6월 2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향년 90세를 일기로 미국에서 별세하였다. 환송예배는 7월 16일 오후 3시 캘리포니아 주 위티어(Whittier, CA)에 소재한 로즈 힐스 메모리얼 파크(Rose Hills Memorial Park)에서 크리스천(그리스도인의)교회[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의 교단장으로 열렸다<미주중앙일보>(Los Angeles, 입력: 2020.07.08.).

<https://news.koreadaily.com/2020/07/08/society/community/8457501.html>

## 5) 김진문 목사

김진문 목사는 1933년 2월 11일생으로서 평남 용강군 신녕면 신암리가 고향이다. 김진문은 1950년 진남포 제일 고등학교, 1960년 서울성서신학교, 1961년 중앙신학교,



김진문 목사  
한성신학교 교장(1982-85년)

1963년 송전대학교 영문과를 각각 졸업하였다. 김진문은 1975년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명문인 임마누엘기독교신학교(Immanuel School of Religion, 현 Emmanuel Christian Seminary of the Milligan University)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듬해인 1976년에 김진문 목사는 미국에서 ‘한국복음선교회’를 만들어 귀국하였다. 또 1984년 미국 국제신학대학원 신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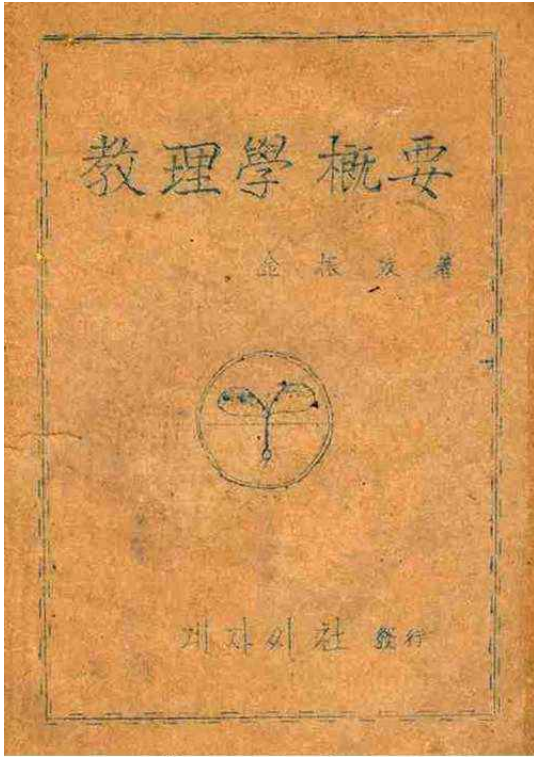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는 김진문이 서울성서신학교 졸업반 때인 1959년에 이미 그를 교수진에 합류시킬 생각을 밝히면서 “김진문 형제는 1960년에 교수진을 도울 준비가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The Seminary,” FCK, 1959년 5월호: 2). 실제로 그는

1962-1964년에 서울성서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65년에 김진문 목사는 대한기독교신학교로 옮겨 교수로서 1971년까지 6년간, 또 1982년에 한성 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1985년까지 3년간 교수와 교장의 직책으로서 신학교들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였다. 1983-1984년에는 한국기독교신학연구원 교수로도 섬겼다.

김진문 목사는 1966년 8월 4일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진문 목사는 1957-1962년 남산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2-1967년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8-1971년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 1976-1985년 신설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각각 시무하였고, 1985년에는 한국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김진문 목사는 지병으로 1985년 11월 10일 낮 12시에 별세하였다.

김진문의 저서에 <교리학 개요>가 있다(<http://kccs.info/kimjinmoonchdoc.pdf>). 이 책은 서론부터 차례까지가 12쪽, 내용이 90쪽, 도합 102쪽으로써 1962년 2월 15일 임명진 장로가 발행하고 계자씨사에서 인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필경(筆耕) 곧 등사원지에 철필로 글을 써서 등사기로 찍어낸 책이란 점이다. <교리학 개요>의 발행처는 그리스도의 교회(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48번)로써 아마도 김진문 목사가 1957-1962년 사이에 시무한 남산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그보다 8년 5개월 정도 먼저 출판된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 목회학>과 출판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이다(<http://kccs.info/sungnsntpt.pdf>). <신약교회 목회학>은 서언부터 목차까지가 8쪽, 내용이 282쪽, 도합 290쪽으로써 1953년 7월 3일 성원경(成原慶)이 발행하고 제일복음사(대표 김광치/金光治)에서 인쇄하였다. <신약교회 목회학>의 발행처는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 출판부(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송월동 32의 6)로써 성낙소 목사가 교수로 헌신했던 곳이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지철희 목사께서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2010년 11월 21일 별세하시기 수년 전에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에 기증한 귀한 교단의 보물이다.

김진문 목사는 이 책의 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온 지



김진원 목사의 <교리학 개론>(102쪽)  
1962년 2월 15일 계좌외전(발행인 임명경)에서 발행  
이르는 성서적 교리를 순서 있게 조직화 하였다.”고 하였다.

가 백여 년이 되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 강산에 전파된 지가 칠십 여년이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급진적으로 전파되어 오늘날에는 무려 백여만 신도를 헤아리게 되었다.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는 사십여 종파로 분리되어 순진한 양떼들을 당혹케 함은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유전과 미신적인 신앙에서 깨어나서 성서적 신앙으로 돌아올 때가 된 줄로 믿는 바이다. 우리는 이것을 외쳐왔고, 또 앞으로도 외쳐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특색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1. 본서는 한글 전용으로 교리를 성서가지고 조직화한 것으로 일반 평신도까지도 개화할 수 있게 하였다. 2. 설교사나 성경 연구가에 필요하게 꾸며졌으며, 구구한 이론적 설명을 피하고 성구로써 그 해답을 주었다. 3. 창세기부터 묵시록에

#### 6) 독립투사 오현팔(吳鉉八, 1895-1972)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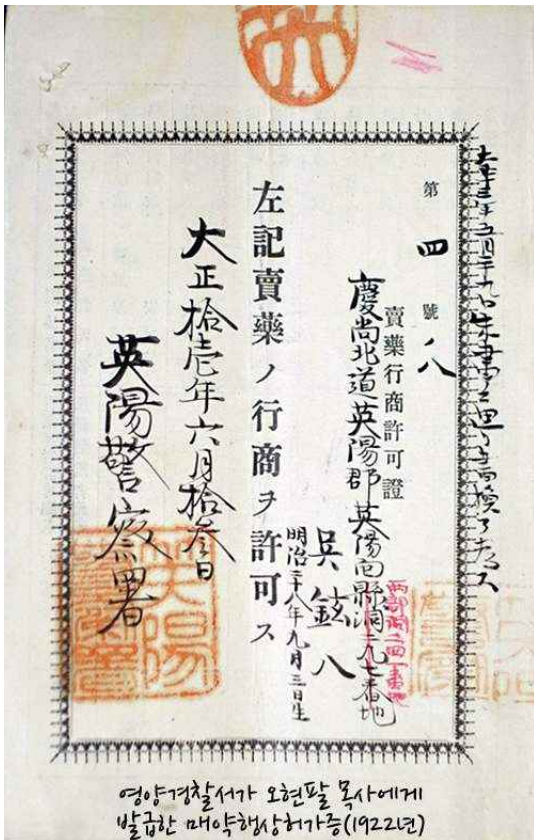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항일독립운동 및 사회유공)을 수여받고 있는 오현팔 목사(1971년 12월 20일)

신약성경교회를 표방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초기 목회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다. 몇 분 되지 않은 목회자들 가운데 동석기,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오현팔, 최춘선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고, 존 J. 채이스 선교사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다섯 개의 교회들 <신당정교회(김요한 목사, 미국 에모리 대학교 목회학석사 출신), 돈암정교회(최상현 목사,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내수정교회(성낙소 목사, 한의사), 산돈암정교회(김문화 목사) 및 청량리교회(박판조 목사)>은 모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서 1940-45년 사이에 성낙소 목사를 필두로 이들 목회자들은 일정에 불려가 모진 매를 맞았고, 김요한 목사는 세 차례나 투옥되었으며, 김문화 목사는 옥고를 치렀다. 1941년 후반기에는 다섯 개의 교회가 모두 폐쇄조치를 당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상현 목사와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낙소 목사는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예배를 빠트리지 않았다. 채이스 선교사는 이 사실을 1941년 초와 1947년 초에 단기간 입국하여 직접 확인한바가 있다.

한때 <신학세계>의 편집인이었던 최상현 목사는 해방 후 미군정 때 연락관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지켜냈고, 애국지사였던 최춘선 목사는 김포지역에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거부였으나 6·25동란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별세하기 직전 몇 년간 세상에 ‘맨발의 천사’로 알려졌다. 한의사(무면허)였던 성낙소 목사는 일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한약방을 열어 생계유지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 더불어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46년에 개명)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일군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독립투사 오현팔 목사의 후손들이 필운동 교회에 출석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오현팔 목사의 손자인 오수강 목사는 성낙소 목사의 손녀와 결혼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 바친 김은석 목사와 연락하고 지낸 사이였고, 미국 일리노이 주 소재 링컨기독교대학 출신과 재학생들이 합심하여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전신인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설립할 당시 설립상임위원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오현팔(吳鉉八, 1895-1972) 목사는 자가 여경(呂卿)이며, 호는 호암(虎巖)인데, 본적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이며, 1895년(명치 28년) 9월 3일생이다. 연희전문학교를 1919년 3월에 졸업한 최상현 목사보다 4년 늦은 1923년에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1919년 2월에 교회를 영양읍 서부동에 창립하였다. 조선야소교장로회는 1921년 2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오현팔 목사(경북 영양군 영양면 현동)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86호 1면(대정10년 7월 23일)>. 1922년 영양경찰서는 오현팔 목사에게 매약행상허가증(賣藥行商許可證)과 함께 매약행상기록부를 발급해주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약사들에게 약품의 처방명, 제조국, 제조자명, 매약업자명, 매약허가사항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였다.

오현팔은 1913년 9월부터 의성인 김원교, 청송인 윤용암 등과 항일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하였고, 1915년 2월에 광복단 본부 밀사로부터 경북도책 간부 및 영양군책에 임명되어 민족정신 고취 밀명을 받아 활약하였으며, 1919년 3월에 독립만세운동 밀령을 받아 영양읍 현동 앞 시골에서 시위하였고, 이후 월남 이상재, 민세 안재홍 등 재경인사

와 남정석 등과 항일운동단체를 조직하여 영양군 청기면 및 영양읍 시장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영양경찰서에 체포 구금되었다. 1919년 10월 광복단 밀사이자 상해 임정 밀사인 영해사람 이경호 등과 연락하여 극비리에 소총 등 50여점을 들여왔으며, 본군 석보면 포산리에서 만세운동 중에 군중에게 발포하던 왜경 및 헌병들에게 호암 오현팔 목사의 매부인 안성룡 외 2명이 전사하였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특히 1930년 1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에 민족단결과 항일애국운동에 관한 시론(詩論) 논문을 게재하여 그 필화(筆禍)로 경상북도 경찰부에 체포 구금된 일이 있었다. 그 후 굴원동지회라고도 하는 오오회(五五會)를 권국찬(權國燦), 이철호(李喆浩), 주원술(朱元述), 조훈석(趙薰錫)과 함께 조직하였고, 오오회를 일방만우회(一方晩友會)로 확대하여 항일독립에 노력하는 한편, 국산품 장려운동과 일제의 농지매입을 반대하는 연사로 활약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오현팔은, 1927년 8월 27일자 '조선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국찬 등과 함께 1927년 신간회 영양지부를 설립하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본상품 불매 및 항일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영양교회는 1940년 4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하였다. 1942년에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동양의 간디'라는 죄목으로 장기 구금되기도 했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세워진 독립투사 호암 오현팔 목사 (1895~1972, 영양교회)의 추모비(1982년 10월 9일 제막)

오현팔 목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지역분할 정책도 비판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영양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1919년에 개척한 장로교회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원한 것이었다.

오현팔 목사는 “지금까지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독립 쟁취를 위해 싸웠으나 이제 나라를 찾고 국권을 회복했으니 더 이상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각 정당의 초대와 국회의원 공천 등의 유혹을 일체 거절하였다. 더욱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항일투쟁사나 그간의 고통과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함구하도록 하는 등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결코 나서지 않았다.

오현팔 목사는 자신의 설교문에서 말하기를, “모리적(謀利的) 신앙가와 사대적(事大的) 신앙가들에게 속지 말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써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통일교니 감리교니 천주교니 성결교니 장로교니 안식교니 하는 교파가 곧 당파가 용인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뿐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이자. 이것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뜻일 것이다.”고 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순종하려는 교회다. 성경을 이탈해 규칙을 만들어 교인을 구속하고 마취시키는 수단과 방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어그러진 시대에서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풍요로웠던 재산을 독립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남은 것이 별로 없었을 때에도 오현팔 목사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목회자이면서 한의사로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의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약을 3첩 이상 짓지 않았고 심지어 돈을 받지 않을 때도 많았다.

주일이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보리갱죽을 해놓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전도자로 삼아 월급을 쥐가면서 함께 살았다. 오현팔 목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삶과 신앙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1963년 3월 1일 영양군수로부터 항일독립운동 공적표창을 받았고, 1971년 7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항일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0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항일독립운동 및 사회유공자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여 받았다. 독립투사 호암 오현팔 목사의 추모비가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1982년 10월 9일 제막되었다. 오현팔 목사는 1972년에 별세하였다[디지털 영양군지 (<https://www.yyg.go.kr/yygunji>) <상권: 지리와 역사>: 442-444, 483; <중권: 인물과 자랑>: 60, 221, 474-5; <하권: 민속과 문예>: 393; 최성주 기자, “하나님의 사람은 민족, 사회, 이웃에 책임 있는 모습이어야,” <들소리신문>(입력 2010.08.25.), <http://www.ing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070>].

## 7) 정인소(鄭寅笑, 1907.11.11-1977.8.27) 박사



1961년 8월 17일 북강 부영초등학교 운동장 좌측부터 이종만 목사, 정인소 박사, 성낙소 목사, 이신 목사, 장성만 목사

<대한민국 인사록>, <(사진으로 본) 국회 20년 부록: 역대 국회의원 약력>, <역대 국회 의원 총람> 등에 따르면, 정인소는 소년시절부터 민족해방운동으로 일제 때 특별 고등요시찰인(日帝時特別高等要視察人)이 되어 128회의 검속투옥이 있었다. 특히 세계어(에스페란토)보급, 금주, 단연(斷煙), 아편, 공창(公娼), 축첩(蓄接) 등을 폐지하는 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광복 후에는 군정청 학무국 계몽강사로 활약하였다. 사재를 투자하여 애지

세계사(愛之世界社), 국제금주동맹, 한국세계어총연맹 등을 창립하여 총재에 취임하였다.

정인소는 조선행정 사찰관, 아마 세계어 전문학관 관장, 국학대학 교수, 국민대학 교수, 푸람파싸 대학 학장, 국제웅변대학 학장, 청주대대학원 원장, 신생활일보사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자신이 설립한 한국세계어협회(Korea Esperanto-Asocio)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랫동안 방송설교를 하였다.



1960-62년경 한국세계어협회 이사장과 교수진  
앞줄 왼쪽부터 이종만 목사, 김현숙 집사, 제민할 선교사, 김리영 교수  
사모, 조호란 목사, 뒷줄 왼쪽부터 조호일 선교사, 조호열 목사, 임봉모 목사,  
임영진 장로, 이신 박사, 정인소 박사(원안), 심영진 목사.

정인소 박사는 청주대대학원 원장을 지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5대 국회의원(지역구 충청북도 음성, 소속 정당 무소속)으로 당선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의원선서를 하지 못하였다. 2013년 7월 13일자 경향신문, '48시간 국회의원 아시나요?'와 2013년 12월 8일자 중앙일보, '48시간 국회의원 괴산 김사만·음성 정인소...DJ도'에 따르면, 정인소는 1961년 5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충북 음성에서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정인소, 김사만, 김성환, 김종길, 김대중(전 대통령) 총 5명이었다. 이들은 선거 다음날인 5월 1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의원 당선증을 받았다. 하지만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곧바로 국회는 해산되어버렸다. 이 바람에 이들 다섯 명은 금배지도 달지 못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원선서도 하지 못한 채, 세비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의원직을 마감해야했다. 이들이 의원 신분을 유지한 것은 1961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었으나 시간상으로는 48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후 정인소는 8번 고향과 서울에서 총선에 도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정인소 박사는 일본 대판 부립중학교, 중국 북경 외국어 전문학교 세계어과, 일본 구주제대(九州帝大) 법대 법문학부 정경과(政經科)를 각각 졸업하였고, 미국 피플스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인소는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더불어 세계평화 수립에 분투노력하였으나 반민특위가 조선총독부 경무부 촉탁, 향민생활사 사장을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아 기소한 바가 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해서 재판은 중단되었다.

정인소는 '한국에스페란토학회'(Korea Esperanto-Instituto, KEI)와는 별도로 1945년에 또 다른 조직인 '한국세계어협회'(Korea Mondlingvo-Asocio, KMA)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였다. 1947년 4월에는 '아마 세계어 전문학관'을 개관하여 관장으로 취임하였고, <세계어 문법>(36쪽, 프린트 판)을 내고, 6월 14일에는 서울 YMCA에서 '세계어 대강연회'(주제: 조선의 장래와 세계어)를 개최하였다. 8월 14일에 '아마 세계어 전문학관'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1962년 신년집)  
 앞줄 왼쪽부터 심영진 목사, 한숙자 사모와 최보열 목사 부부, 이종만 목사, 뒷줄 왼쪽부터 존 J. 힐 선교사, 한 사람 건너 임훈봉 목사, 정인소 박사(원안), 성낙소 목사, 이신 목사, 고광석 목사, 장주열 목사, 소교만 목사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9월에 그의 <세계어 사전>(228쪽)과 <세계어 문법>(40쪽)이 애지세계사 출판으로 발행되었다. 시조사가 발행하는 1948년 9월호 <시조>(時兆)에 ‘문명 국가의 금주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52년 한국세계어협회를 사단법인화하고 <세계어의 사명>이란 책도 출판하였다. 1956년에 <세계어 문법 강의>(64쪽, 한국신생활사), 1957년에 <세계어 교과서>(96쪽, 한국신생활사)를 출판하였다.

참고로 ‘에스페란토’는 폴란드의 안과 의사 루도비코 라자로 자멘호프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 목적으로 창안한 세계어, 곧 인공어이다. 자멘호프는 고등학교 때인 1878년에 시험판을 만들었으며, 10여년에 걸쳐 에스페란토의 문법과 어휘를 개량하여 1887년에 <첫 번째 책>(Unua Libro)를 발표하였다.

정인소 박사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와 서울성서신학교에 얼마나 관여하였는지는 1963년 개교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에 정인소 박사는 1960년대 초 존 J. 힐 선교사와 연관된 한국성서신학교 및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행사들에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인소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동역자이기보다는 존 J. 힐 선교사의 동역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아래의 사진들은 그가 한국성서신학교의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선교사들과 내국인 동역자들, 특히 충청이남지역 사역자들과 고루 교제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인소 박사의 옷차림은 늘 소박하였고, 검정 고무신을 즐겨 신었다.

## 8) 이기구 목사



이기구 목사(신길그리스도의교회, 1952년 10월 3일 개척)와 김홍수 목사(동역)

이기구 목사는 1952년 10월 3일 신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또 같은 지역에 중학교를 세워 건물을 짓고 운영하던 중에 존 J. 힐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기구 목사는 금광을 운영하는 동서의 도움으로 중학교 교사를 건축하였다. 그러나 5천 달러 정도의 빚 때문에 거의 팔릴 뻔하였다.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성서신학교에



월 26일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의 모친이 테일러에게 “몸의 한쪽이 마비된 채 힘 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듯 그녀(이기구의 아내)의 두상(정수리)에 난 커다란 흉터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Harold Taylor, “Middle Schools,” FCK, 1956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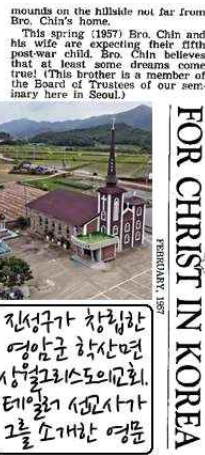
이기구 목사는 훗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넘어 갔다[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서울문화인쇄, 2003): 47].

### 9) 그리스도의 교회가 낳은 사랑의 원자폭탄 진성구 장로

#### Love Your Enemies

(The following story compares well with a more famous one in the book, 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 That one tells the wartime experiences of one Chin Song Koo.)  
Bro. Chin Song Koo was an elder in the Sang Wul ri Church of Christ when, in 1951, the Communists came to his part of extreme southern Korea.  
One morning as Bro. Chin was going toward his fields of ripened rice he suddenly found himself surrounded by several of his fellow villagers. Their leader spoke: "Don't hold your nose so high. The world is quite changed now and it is time for you Christians, Yankee's dogs, to vanish away." Bro. Chin saw that he faced only cold, stern, unsympathetic eyes. It was obvious that his attackers were seeking the applause of their leaders, the Communist army which was then just over a small hill from his village.  
That night Bro. Chin was confined in a small room, waiting for the "peoples' judgment" the next day. No doubt that his fate was already decided before he was caught. He was very frightened and he thought that his days on earth were finished. He prayed that he might be prepared for the end. The peace of the Lord came to him and his nerves were settled.  
Next morning Mr. Chin found himself in a cave on a mountainside, not knowing how he had come there. As he sat pondering his situation his past life came before him.

He recalled especially a dream which he had soon after he was married. He had seen a tree with two branches, one with five fruits on it, and the other with three fruits. Then he saw the three fruits fall to the ground.  
Finally Bro. Chin crawled down the mountain and was taken in by a woodchopper who, with his wife, took care of him for several days, until the Communists had been forced back north and Bro. Chin's village was again set free. With much anxiety for his family he hastened home to find that his three sons had been beaten to death by his Communist neighbors, and that those men had been captured. Then friends gave Mr. Chin a gun that he might take his revenge against those men.  
Tears flowed down his face as our brother considered his situation. He has lost his three children and his heart seemed to be full of sorrow and hatred. Then it came to him that these feelings were strange to him as a Christian. Before him were three graves and the murderers of his children. What should he do?  
Out of the village and around the hill went three men followed by a fourth with a gun. A little later three shots were heard, and every one thought that vengeance had been taken.  
But, being a Christian, Bro. Chin had released the three men and six months later they returned to their home. During the spring of 1951 three men were seen silently to place wreaths on three little



진성구는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일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립자이자 장로였다. 6·25동란 때인 1950년 11월 6일에 마을 빨갱이들에 의해서 교인 35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교회이다. 1950년대 초에 이동 신학교였던 신화신학성경연구회(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요한 목사의 유달교회(당시 순복음교회)에서 모였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진성구 장로가 제공한 목포

시 죽교동의 건물 2층이었다. 진성구 장로는 최요한 목사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1957년 9월 창립 때부터 교회를 떠난 1968년까지 10여 년간 섬겼고, 김은석 목사가 자주 그의 집에서 묵었다.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게 김교인 장로(전남 함평)와 더불어 진성구 장로의 집(목포)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과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처럼 선교의 허브들이었다. 또 진성구 장로는 1957년 무렵 테일러 선교사가 운영했던 서울성서신학교의 이사로 섬겼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7년 2월호에 진성구 장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성구 장로는 1950년 10월 말 어느 아침에 수확을 앞둔 벼를 살펴보려고 논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진성구 장로를 에워쌌다. 그리고 “거만하게 굴지 마라. 세상이 바뀌었다. 양키의 통개들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해 버리겠다.”며 주동자가 엄포를 놓았다. 그들의 눈은 살벌했고 강경했으며 냉정했다. 그들의 이 소행은 마을의 나지막한 언덕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군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꾸민 짓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은 그날 밤 진성구를 작은 방에 가뒀다. 내일 진성구를 인민재판에 세울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진성구를 납치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있었다. 진성구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였다. 진성구는 최후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평안이 임했고, 마음이 안정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성구는 자기 자신이 산중턱 동굴에 버려져 있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진성구는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연 살아온 지난날이 회상되었다. 특히 그가 결혼직후에 꿔던 꿈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때 그는 꿈에서 두 개의 가지가 돌아난 큰 나무를 보았는데, 한 가지에는 세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고, 다른 가지에는 다섯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세 개의 열매를 매단 나뭇가지의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꿈이었다.

정신을 차려 진성구는 산에서 기어서 내려왔고, 벌목꾼에게 발견이 되어 그들 부부로부터 수일간 정성스런 간호를 받았다. 그 사이에 공산군들이 쫓겨 북쪽으로 퇴각하였고, 마을은 그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진성구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세 아들이 이미 마을 빨갱이들로부터 살해된 후였다. 마을의 빨갱이들은 곧 체포되었다. 친구들은 진성구에게 충을 건네주면서 그들에게 복수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 목불인견의 상황에 처한 진성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세 명의 아들을 모두 잃은 그의 마음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듯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구는 그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웬일인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눈앞에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뭍은 세 개의 무덤들이 있고, 또 그들을 죽인 살인마들이 있었으며, 자신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해야하는가?

마을 밖에 언덕 주변으로 세 사람이 끌려갔고 또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그들을 뒤따랐다. 얼마쯤 후에 세 발의 총소리가 났다. 그 총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보복살인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던 진성구는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월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951년 봄철에 세 사람이 말없이 세 개의 작은 무덤위에 꽃다발을 놓고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 무덤들은 진성구의 집에서 가까운 언덕비탈에 있었던 것이다.

금년 봄(1957)에 진성구 장로와 그의 부인은 6.25동란이후 낳은 다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진성구 장로는 적어도 몇몇 꿈들은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Harold Taylor, "Love Your Enemies," For Christ in Korea, 1957년 2월호>.

## 2.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고든 패튼 선교사

패튼 Gorden Harry Patten 배도은 1933.06.24.-2018.09.20,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목사, 신학교 교장, 교회개척자, 문서선교, 교도소선교, 한국‘기독교회’선교부 마지막 선교사.



Gorden H. Patten(1933.06.24.-2018.09.20)

패튼은 1933년 6월 24일 오리건 주 코티지 그로브(Cottage Grove)에서 아버지 해리(Harry)와 어머니 루스(Ruth Mainwaring) 사이에서 태어났다. 브롬바에서 블루 마운틴 초등학교(Blue Mountain Elementary School)를 다녔고, 1951년에 코티지 그로브 고등학교(Cottage Grove High School)를 졸업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 후 패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코티지 그리스도의 교회(Cottage Grove Church of Christ)를 출석하였다.

고든 패튼은 미군에 징집된 직후인 1954년 1년간 한국에서 근무하였다. 패튼이 근무를 지망한 나라들 가운데 극동이 가장 마지막 희망 근무지였고, 한국은

희망 근무지 목록의 마지막 나라였다. 그러나 패튼이 보내진 곳은 그가 택한 마지막 선택지였던 한국이었다. 그때가 1954년 6·25전쟁 직후라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전쟁고아도 많았던 때였다. 패튼은 준비가 되는대로 한국에 다시 오겠다는 포부를 갖고 미국에 돌아가 제대하자마자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성서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에 입학하였다. 패튼은 산호세성서대학에서 오리건 주 유진(Eugene Oregon)의 대학가(College Street)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인 샤론 콜버(Sharon Collver)를 만나 결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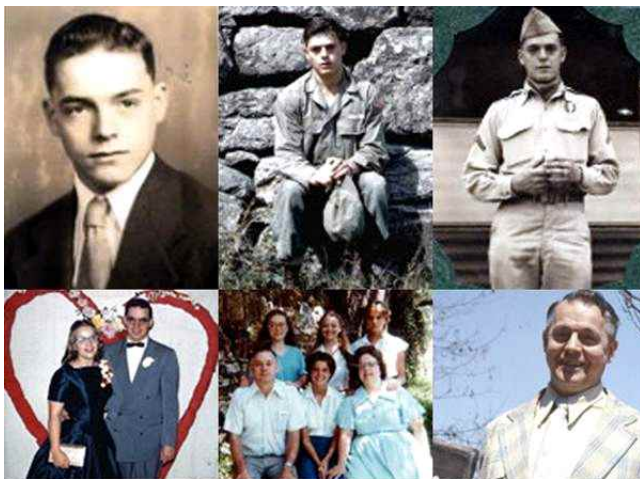


고든 패튼 선교사와 백복길 목사(통역), 1985년

고든과 샤론 패튼 부부는 1960년에 대학을 함께 졸업하였다. 그리고 1962년 5월 25일 두 딸과 함께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한국에 도착한지 2개월 후에 셋째 딸이 태어났다. 선교 초창기에 패튼은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에서 1963년에 역촌동(현 신사동)으로 옮겨온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월간지 <한길> 발행과 부평보육원을 도왔으며, 두 차례 부산

을 왕래하였다. 1964년에 가정에서 영어성경반을 시작하였고 새 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그간에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거처하였었다.

고든 패튼은 1965년부터 66년까지 <한길>지에 영지주의, 물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등의 이단에 관한 글들을 게재하였다. 또 1968년에는 <한길>지에 라쿤 존 스미스("Raccoon" John Smith)의 전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69년까지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월터 스콧트(Walter Scott),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등 환원운동가들을 소개하였다.



고든 패튼(Gorden Harry Patten, 1933.06.24.-2018.09.20)  
고든의 10대, 20대(군복무) 및 결혼, 부인 샤론 콜버(Sharon collver)와 네 딸(1970년대 후반), 그리고 성경을 손에 든 고든 패튼(1980년대) 선교사.

패튼은 1966년에 첫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후 부터는 문서선교에 힘썼다. 성경공부 교재를 출판하였고, 1968년 교도소선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과 <반석 위에>라는 책을 번역 출판했다. 1970년에는 30여 종류의 전도지 50만장을 찍어 교도소 전도용으로 활용하거나 교회에 보냈다. 패튼의 문서선교는 1975년 태광출판사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태광출판사는 성서주석과 같은 많은 종교서적과 전도용 전단들을 영어에

서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보급하였다. 1977년까지 총 23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1982년에 4권의 책과 10만장의 전도지를 발간하였고, 1984년에는 두 권의 새로운 책을 발간하는 등 1988년까지 총 58권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패튼은 자신이 직접 <기독교 교리>(1972),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1975), <밝혀진 비밀(요한계시록연구)>(1983)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또한 보수선교단체에 의해 문화사역이 활성화되던 1971년 복음영화를 교도소, 군부대, 교회, 고아원 등지에서 상영함으로써 복음전도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고든 패튼(배드온) 선교사 가족(1962년 입국 당시의 모습)  
 좌측부터 레이철 마리(Rachel Marie), 샤론(Sharon collver)과  
 고든 패튼(Gorden H. Patten) 부부, 레베카 루스(Rebekah Ruth).  
 패튼 선교사는 1980년 한 해 동안에 부인 샤론의 별세와 네 딸 가운데  
 장녀 레베카 루스가 존슨성경대학 재학 중에 별세하는 큰 고통을 겪었다.

패튼은 1972년에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낸 후 귀국하여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가 은퇴한 1974년에 마이클 쉘리(제1대 포교관리자, 1935-36), 존 채이스(제2대 포교관리자, 1937-41), 김요한(제3대 포교관리자, 1941-44), 존 힐(제4대 책임자, 1948-55), 해롤드 테일러(제5대 책임자, 1955-74)에 이어서 제6대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자에,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의 제3대 이사장과 존 채이스(제1대, 1937-40), 존 힐(제2대, 1940-55), 해롤드 테일러(제3대, 1955-74)에 이어서 제4대 '서울성서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1975년 이광 고등공민학교(현재 학력인정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였고, 1979년에는 신학교 이전을 위해서 안양에 부지를 매입하였다. 1978년에 미국에서 데보라 햄(Deborah Ham)을, 1979년에는 데이비드 워너(David Warner) 가족을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동역하도록 하였다. 1980년 부인 샤론 콜버(Sharon Collver)가 별세하였고, 네 딸 가운데 장녀인 레베카 루스(Rebekah Ruth)가 미국에서 사망하는 슬픔 속에서도,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의 통합에 합의하여 1981년 3월 2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후 통합신학교(대한기독교신학교)의 이사장직을 수행하였다. 1982년에는 329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1983년에 선교부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선교부 건물을 완공시켰다. 패튼은 보람교회를 창립하였다.

고든 패튼 선교사는 한국에 온 이후 30년간 정열적인 신학교 교수로서, 이사장으로, 서적 발행인으로,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 양성과 발전에 주력하였다. 패튼은 원서들을 들여와 우리말로 번역 출판함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신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고, 부평 고아원 후원, 군인선교 및 교도소 선교, 보람교회 창립을 통해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크게 헌신하였다. 또 보람교회 내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이광고등공민학교에서 중학생들을 교육하였다.

고든 패튼 선교사는 1991년 5월 19일 서울 영동교회(이강평 목사 시무)에서 한국 선



좌측부터 박점상 목사, 고든 패튼 선교사, 윤영중 목사  
2007년 8월 6일 75주년 기념대회장에서

교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후 패튼은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도 패튼은 한국과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지속하였다. 패튼은 1995년에 오리건 주 포크 카운티 폴스시티 그리스도(인)의 교회(The Falls City Christian Church in Polk County, Oregon)에서 목회하였다. 패튼은 2018년 9월 20일 오리건 주 아데어 빌리지(Adair Village)에서 85세를 일기로 소천하여 고향 땅인 브롬바 공원묘지

(Brumbaugh Cemetery)에 영면하였다.

[주요저술] 배도은, 『기독교교리』 (서울: 태광출판사, 1972); 배도은, 『밝혀진 비밀 (요한계시록연구)』 (서울: 태광출판사, 1983); 배도은,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 차원봉 옮김(서울: 태광출판사, 1975).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151-53,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 (서울: 쿤란출판사, 2018), 140-42,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195, 202, 236, 244-47, 250, 264; Harold Taylor, "A Place for the Patten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3; <http://kccs.pe.kr/rmp016.htm>;

<https://www.tributearchive.com/obituaries/3347387/Gorden-Harry-Patten>;

<https://www.cgsentinel.com/article/gorden-harry-patten>;

<https://www.smithlundmills.com/obituaries/Gorden-Harry-Patten?obId=3347387>;

<https://www.ancestry.com/genealogy/records/rebekah-ruth-patten-24-9dcf3h>.

### 3. 선교사들과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이견

#### 1) 수도권외 동파(East)와 서파(West)

테일러 선교사는 종종 분열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활동한 20여 년간 실제로 분열은 없었다. 그가 말한 분열이란 대개가 불화, 이견 혹은 견해차라고 말해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필자의 은사인 신시내티성서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 of the 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의 역사학자 제임스 노스(James North)는 수업 중에 미국의 비교파주의 신약성경교회를 미국식 민주주의 교회라고 말

한 바 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식하고자 했던 신약성경교회가 바로 이 미국식 민주주의 교회였던 것이다. 반면에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이 생각한 비교파주의 신약성경교회는 한국식 그리스도(인)의교회였던 것이다. 한국적 토양과 기후에 잘 맞는 토착적 그리스도(인)의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이런 시도를 교파주의 또는 분열주의로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목회자들은 교파 교회들의 제도를 많이 차용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신약교회로의 환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란 주제와 이신 목사가 강연하는 모습(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 예배당)

테일러 선교사가 계획했던 비교파주의 플랜은 한국문화와 종교상황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의 협의회도 총회도 테일러 선교사가 원했던 조직은 아니며, 개 교회들의 조직과 직책도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원했던 100퍼센트 미국식 신약성경교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단 한 번도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미국식 신약성경교회였던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헌신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는 다른 한국적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고 수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교 초기에 테일러 선교사가 가졌던 내국인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는 점차 누그러졌으리라고 본다. 게다가 내국인 지도자들도 선교사들이 강조한 비교파주의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였고 환원정신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신약성경교회에 대한 사명감도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성낙소 목사가 1952년에 출판한 목회학 책의 제목이 <신약교회 목회학>인 것과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존 힐 선교사 참석)의 주제가 ‘신약교회로의 환원’인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경)

테일러는 자신이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0년 2월과 5월호에서 수도권 목회자들을 성낙소 목사를 따르는 동파(East)와 자신을 따르는 서파(West)로 분류한바가 있다. 동파와 서파 사이에 대화 모임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59년 11월 10일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동서간 회의’(An East-West Conference)를 개최하였으나 서파는 참석하지 않았고, 동파만이 참석하였다. 그날 동파는 자기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의안 사본을 테일러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일러에게 전달된 결의안이 없었다(Harold Taylor, “Frank-Talk Meetings,” FCK, 1960년 2월: 4; FCK, 1960년 5월호: 2). 성낙소 목사

는 근본적으로 채이스의 사람이었다. 채이스의 사람들 가운데 해방 후에도 사역을 지속한 사람들은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 백낙중 목사 세 사람이었으나, 6·25전쟁 중에 최상현牧사는 납북당하고, 백낙중 목사는 공산군에 피살당하여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60살이 갓 넘은 성낙소 목사뿐이었다. 한학자요, 한의사(무면허)였던 성낙소 목사는, 비록 체구는 왜소했지만, 성격이 곧고 날카로워 선교사들에게 쓴 소리를 하는 목회자였다. 무엇보다도 성낙소 목사는 신약성경교회에로의 환원에 대한 신념이 매우 강하였다.



좌측부터 조충연 목사와 방집사(1960년)  
이들은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온 후 서울성서신학교 건축에  
참여하였다.

테일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성낙소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필운동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장로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 테일러는 부교역자였던 조충연과 한 명밖에 없던 방(Pang) 집사까지 필운동 교회를 떠난 것은 성낙소 목사가 테일러의 비교파주의 플랜, 곧 신약성경교회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플랜에 반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고하였다 <Harold Taylor, “Frank-Talk Meetings,” FCK, 1960년 2월: 4>. 테일러 선교사는 1959년 3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운동교회를 떠나 홍재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조충연과 또 필운동교회를 떠난 방 집사를 서울 성서신학교 건축현장에 투입시켰다.

## 2) 충청이남권의 반선교사 정서

또 충청이남지역에 기반을 둔 김은석 목사와 이신 목사 등은 성령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인데다가 선교사들(채이스, 힐, 테일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아니한, 스스로도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임을 자긍하는 이들이었다[이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 <http://kccs.pe.kr/rmw001.htm>;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8]. 그들은 채이스를 만나 교류한 적이 없고, 1947-48년 사이에 미 공군 군목 할 마틴<‘마틴 Martin, Hal H.’ [http://kccs.info-인물자료\(국외\)](http://kccs.info-인물자료(국외))>, 1949년 이후 존 J. 힐 그리고 1956년 이후부터는 해롤드 테일러와 집회 때 또는 도움을 청하려고 갔을 때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교사들의 지시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배타적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사이에 교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편해하였다. 1950년대 초에는 이런 불편을 참지 못하여 정찬성 목사, 김상호 목사(오산리 금식기도원 주임목사로 섬김), 최요한 목사(몇 년 후 돌아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 김교인 장로(부강교회 창립멤버,

함평 석성리 신생교회를 순복음교회로 바꿈)〈김교인(1890-1970) 장로〉  
[http://kccs.info-인물자료\(국내\)](http://kccs.info-인물자료(국내))〉 등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떠나 순복음으로 넘어갔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페니 루(Penny Lou), 해롤드(Harold),  
 에이다(Ada), 러렌드(Leland), 글렌(Glenn)

테일러 선교사는 채이스와 힐 사이에서 빛  
 어진 분열을 일치와 평화로 바꿔보려고 노력  
 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 테일러는 목포  
 유달교회(최요한 목사가 진성구 장로의 집 2  
 층에 개척한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신화신  
 학성경연구회에 몇 차례 참석하여 설교도 하  
 고 강의도 하였다. 테일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은 지속되었다. 〈한국에 그  
 리스도를〉 1957년 2월호에서 테일러는 말하  
 기를, 1956년 8월에 목회자 대회(수련회)가  
 소집되었는데, 교단을 장악하려는 한 그룹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선교사들을 배척했  
 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도쿄에서도 그 보다  
 일 년 전에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 조직은  
 선교사들을 배척했다”(This organization was  
 set against the missionaries.)고 하였다. 목회  
 자 대회 후에 테일러가 들은 이야기는, “만약  
 테일러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기  
 금과 물자를 우리에게 넘겨 우리가 그것들을 배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신학교 운  
 영도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1955년 12월에 누군가가 테일러에게 말하  
 기를,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돈을 원할 뿐이다.”고  
 했다고도 한다. 테일러는 이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후 그는 그들의 조직, 곧 총회장, 부  
 총회장, 총무, 회계, 목사안수위원회, 목사심의위원회 등이 적힌 계획서를 보았다고 한  
 다. 이에 테일러는 전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 같은 조직은 신약성경의 가르침  
 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편지의 결과로 소수의 교회들만이 그 조직에 가  
 입하였고, 나중에 10여개의 교회들이 다시 탈퇴하였다고 적었다(Harold Taylor, “One  
 Year in Korea,” FCK, 1957년 2월호: 1).

테일러는 이 새로운 조직, 곧 협의회가 성경학교를 시작하였고, 서울에서 남쪽으로  
 80여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한 목사에게 맡겼던 돈의  
 얼마를 차지하는데도 성공하였다고 적었다. 그들은 또 힐 요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같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테일러 선교사가 지목하여 말한 곳은 부강의 신화신학성경연구회였다고 추정된다. 그러  
 나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서 이제 협의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회와도 이전의 친교를 회복하였다고 적었다. 더 이상 총

회장 따위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파주의 플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Harold Taylor, “Report of Progress -,” FCK, 1957년 6월호: 1).

그러나 테일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처럼 이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 따르면, 1957년 8월에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온지 두 달도 채 되지 아니한 래쉬 선교사와 통역 문(대연)과 함께 전남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열리는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 참석하였다. 이신과 김은석 목사가 가르쳤는데, 12명의 목회자들과 2명의 여전도사들(Bible women)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었다(김은석, 이신, 김재순, 임남규, 이안식, 도주일, 김규상, 박병우, 안영숙, 임혜숙, 등). 테일러와 래쉬의 시간에는 이신 목사와 문(대연) 형제가 통역하였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 테일러는 이신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는데, 밤새도록 12시간을 항해한 끝에 제주도에 닿았다. 기독교회선교부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제주교회(천막) 방문을 마치고 목포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파도가 높아 고생이 많았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같은 정황이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방증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선교사가 주도하는 이 연합집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내국인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김은석 목사는 1957년 8월 30일(금)자 메모에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목포 유달교회당에서 봉독함. 이번 집회는 진행해 가기가 극난인 것인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유는 선교사 주최라 함이다.”고 하였고, 31일(토)자 메모에서는 “아침은 또한 목포성경연구소에서 7:5-8장까지 봉독함.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한 것은 선교사들에(의) 행사가 불이(의)함으로 동참 아니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데 몇 분은 같이 하자하고, 어떤 분은 곧 그만 두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은 복잡함을 금할 수 없으며, 알고 보며(면) 부족함은 누구에도 있습니다. 저녁때에 목포 진(성구) 장로님 방에서 고린도후서 9-12장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이신, 김은석 4인이 결의 부강서 9월 17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기로 함”이라고 적었으며, 9월 1일자 메모에서는 “이 주일 아침은 목포교회당에서 예레미야애가 1-2:7까지 봉독함. 금번 목포에 도착하여 있음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전남 전도자 수양회 중에 강사로 옴이다.”고 하였다. 또 9월 2일(월)자 메모에서는 “아침에 목(포) 교회당에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봉독함. 금번 목포 모임은 테일러 선교(사)가 주최로 전남 교역자수양회. 목포 어떤 냉면집에 가서 선교자(사) 내슈(래쉬)와 문대연 통역 형 같이 함. 냉면은 일기(一器) 2백환이다.”고 하였고, 9월 3일(화)자 메모에서는 “아침은 갈라디아서 3:1-4:11까지를 목포교회당에서 봉독함. 오후에 4:12-6장까지를 목포교회 진(성구) 장로 방에서 봉독함. 선교자 테일러 씨에게서 돈 6천환을 여비로 받았다. 테일러씨는 ○○○(이신)와 같이 제주도에 가심과 금번 교역자집회는 금일로 마쳤다.”고 적었고, 9월 4일(수)자에서는 “아침은 목포교회당에서 에베소서 1:1-2:12까지 봉독함. 선교사 내슈, 문대연씨도 서울에 가시고, 이안식, 도주일, 김규상, 박병우, 안영숙, 임혜숙, 다 작별하고...”라고 적었다[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시시울, 2020: 217-18)].

### 3) 반선교사 정서의 원인

테일러 선교사와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이견 또는 내국인들의 반선교사 정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테일러 선교사는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토착적 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후원방식에서 미국식 정책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이전의 선교사들, 곧 채이스와 힐이 취했던 방식, 곧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매월 후원금을 주던 방식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한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단회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점은 테일러 선교사가 초기에 취한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사용한 방식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는 전국의 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 각 교회의 상황파악에 나섰고, 각각의 교회가 예배당을 짓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만 보충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써 테일러는 보다 많은 교회들을 짓거나 보수하는 일에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내국인 사역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둘째, 서울성서신학교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 사이의 이견은 이미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인 1950년대 초 존 J. 힐 선교사 때부터 있어왔다. 이견의 핵심은 성령론이었고, 교단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목회자들도 있었다. 1953년 4월 8일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가 광주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미 김상호 목사와 정찬성 목사, 최요한 목사가 순복음 교단으로 넘어갔고(자신의 유달교회를 신화신학성경연구회 집회소로 쓰게 할 정도로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등과 교제를 끊지 않았던 최요한 목사는 결국 몇 년 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다시 돌아옴),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초기에 김교인 장로도 마을 주민이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이었던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를 가지고 순복음 교단으로 넘어갔다. 그는 이 순복음교회에 땅까지 기증하였다.

충청이남 지역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라 성령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김은석, 이신, 최요한의 영향 하에 세워진 교회들이었다. 선교사의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사의 돈이었지, 가르침은 아니었다는 말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테일러가 분열주의자로 주목한 목회자들은 바로 이들 충청이남지역 목회자들이었다. 그들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신화신학성경연구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서울성서신학교를 운영하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충청이남 지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최윤권 목사는 김은석 목사를 일컬어 “90여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환원운동의 용사이다.”고 적었다[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서울문화인쇄, 2003): 41].

잊혀 있던 역사를 되살리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과연 그 일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인가? 잊힌 그대로 두어도 누구도 아쉬울 것이 없고, 어쩌면 발굴하지 않고 묻힌 그대로 두어 영원히 잊히도록 방치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는가? 이 질문은 필자가 종종 자신에게 던졌던 물음이다. 하물며 독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민족의 한이 맺힌 서글픈 역사에서조차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코끝을 찡하게 만들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게 하는 가슴시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이야기들 속에 담긴 감동이야, 한이며, 안타까움이다. 잘난 선배이든 못난 선배이든 우리 모두는 선배들이 몸 바쳐 겹겹이 쌓아올린 지층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 우리가 딛고 선 지층들 속에 무엇이 매장되어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속에 어떤 보물과 고증학적 파편들이 숨어있는지 어찌 궁금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나라가 실재함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누추하게 살면서도 작지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친 선배들의 상급이 어찌 명예와 부를 누린 이들의 것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